

새로운 시도로 건설 업계 선도하는 GS건설 자이



XIAN vie

건설업계 최초 커뮤니티 서비스브랜드!
자이의 새로운 모바일 통합 앱기반 서비스



업계 최초 커뮤니티 통합서비스 브랜드 론칭

GS건설 브랜드 자이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고객이 특별한 삶의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늘 새로운 형식의 주거 공간을 제안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선보이며 주거 브랜드를 넘어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 자이는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여 만족도 높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끊임없이 상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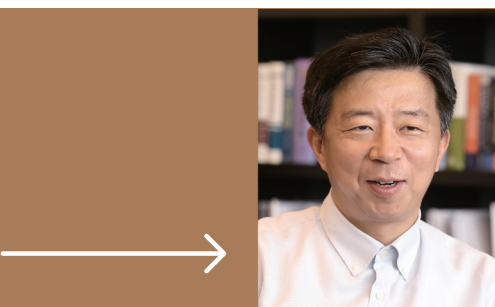
GS건설은 지난해 말, 국내 건설 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통합서비스 브랜드 '자이안 비(XIAN vie)'를 론칭했다. 'XIAN vie'는 '자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XIAN'과 '삶', '생활'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vie'의 합성어로 '자이에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의미한다. 자이의 고객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내는 시간, 경험의 가치에 주목하고 단순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생활문화콘텐츠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에서 컨시어지나 조식서비스 등 개별서비스를 선보인 경우는 있지만 별도의 서비스 브랜드로 론칭한 것은 업계 최초이다. 'XIAN vie'는 생활 주기 플랫폼(Life Time Platform)이라는 컨셉 아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택 시장을 리드할 자이의 브랜드 가치

언택트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 리더의 역할도 이뤄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자이는 유튜브 자사채널인 '자이TV'를 개설해 고객과 소통에 나섰다. 이는 현재 건설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올해 초에는 브랜드 웹 매거진 '비욘드 아파트먼트(BEYOND APARTMENT)'를 오픈하며, 2002년 브랜드 론칭 이후 전국 266개 단지 24만 세대 입주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며 자이 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이는 프리미엄브랜드로 국내 주택 시장을 리드함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이의 역량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명실공히 주거문화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GS건설 자이는 건설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잇따라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분양소식 알림, 브랜드채널 운영, 주거 형태 및 외관 차별화 등 다양한 도전에 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쌍방향 기반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한 미래형 증강현실 모델하우스를 구현하였다. 타 건설사와의 차별점이 두드러지면서 건설사 마케팅의 새로운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임병용

GS건설은 앞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최첨단 시스템과 디자인을 상품개발의 핵심 화두로 설정하며, 편리성과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철저한 시공을 통해 국내 주택 시장을 리드함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이의 역량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